

Ⅲ. 192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 운동

1. 다양한 재일한인 민족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발전해 갔다. 재일한인 민족운동이 본격화된 사건은 新潟縣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이었다. 1922년 7월 니이가타현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 100여명이 학살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와 일본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조선인 단체를 조직했던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해 1922년 동경과 대판에서 조선인노동동맹회가 결성되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초 재일한인 민족운동에서 주목되는 조직은 사상단체이다. 이른바 사상단체는 마르크스주의 사상단체로 사고와 이성의 발전을 임무로 하는 조직이며,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와 학설을 연구·선전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한다. 그리고 사상단체란 사회주의운동 초기에 사회주의사상을 선전·보급하고 대중적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지향하는 지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전반기 재일한인 민족운동 조직 가운데 주목되는 사상단체는 흑도회, 흑우회, 동경조선청년동맹회, 북성회, 일월회, 조선여자삼월회, 신흥과학연구회, 조선무산자사회연맹, 조선인신진회, 재대판고려무산청년동맹, 재일본배달소년단, 淸州朝鮮인노동동지회청년단, 계림무산청년동맹, 조선노동청년단, 兵庫縣조선무산동맹 등이 있었다.⁴⁴⁾

흑도회는 아나키스트계열의 일본 내 조직으로 1921년 조직되었다.⁴⁵⁾ 흑도회는 일본인 아나키스트인 岩佐作太郎의 도움으로 결성된 단체로, 주요 회원은 김관권, 권희국, 원종린, 김약수, 박열, 임택용, 장귀수, 김사국, 정태성, 조봉암 등이었다. 그리고 기관지 『흑도』를 발간했다. 이 조직은 1922년 11월 아나키스트계열과 불세비키계열로 양분되고, 박열 등의 아나키스트들은 풍회회를 조직했고, 1923년 2월 흑우회로 개칭하고 기관지 『不逞鮮人』을 발간했다. 이후 『太い鮮人』, 『現社會』로 이름을 바꿔 발간하기도 했다.

아나키스트로 주목되는 인물은 박열이다. 이 박열은 아나키즘의 실현을 위한 투쟁 방법으로 테러를 차용하기로 하여, 1923년 10월 예정되었던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요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1923년 9월의 간토대진재 때 체포당함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재일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운동은 잠시 침체되었으나, 무산학우회, 동흥노동동맹회, 관동동흥노동동맹, 흑우사, 흑색전선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 내의 아나키즘운동은 1927년 이후 공산주의세력과의 이론투쟁의 과정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⁴⁶⁾

한편 북성회는 흑도회가 1922년 11월 아나키스트와 불세비키로 분화되어 김약수, 김종범, 송봉우, 이여성, 안광천 등 불세비키계열의 구성원 60여명이 조직했다.⁴⁷⁾ 북성회의 활동은 크게 국내와 일본지역에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 내 순회강연회, 토요일회, 건설사, 북풍회 등의 조직을 들 수 있다. 이들 북성회의 조직원들은 정치적

44)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105쪽.

45) 오장환, 「1920년대 재일한인 아나키즘운동 소고」, 『한국민족운동사연구』(17), 1997, 12, 158쪽.

46) 오장환, 「1920년대 재일한인 아나키즘운동 소고」, 『한국민족운동사연구』(17), 1997, 12, 191쪽.

47) 김명섭, 「흑도회의 결성과 활동」, 『사학지』(31), 1998, 참조.

활동무대를 찾아 조선으로 돌아왔다.⁴⁸⁾ 과거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상당수가 1924년 11월 25일 13인의 핵심적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북풍회를 조직했다.

또한 북성회의 계속 조직으로 일월회가 1925년 1월 3일 결성되었다. 이 조직의 상당수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삼월회, 재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 등의 간부를 겸하면서 조직을 지도·원조했다. 1926년 11월 28일 일월회는 해체되고 정치구락부를 조직했다. 재일한인 민족운동을 내용적으로 지도하던 일월회 내에는 혁명사의 구성원이 들어가 활동했다. 이 일월회는 북성회의 계속 조직으로 1925년 시기 결성되어 혁명사의 지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혁명사의 조직을 통해 일월회는 단순히 일본 내 재일한인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공산주의운동을 한 시기 주도했다.

이와 함께 일월회의 자매 여성단체로 삼월회가 있다. 삼월회는 1925년 3월 이현경, 황산덕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무산계급과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일월회는 협의적 성격의 관동조선무산계급단체협의회, 극동사회문제연구회, 조선내지운동특별연구위원회, 재일조선무산계급단체협의회 등과 구성원이 겹친다.

1920년대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에는 민족주의계열 종교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민족주의계열의 종교단체로 반일투쟁세력 가운데 1921년 2월 천도교총리원이 동경에 창립되었다.⁴⁹⁾ 그리고 박달성, 방정환, 김상근, 이기정 등을 중심으로 동경천도교청년회가 1921년 2월 결성되었다. 동경천도교청년회의 조직은 국내 천도교세력의 세례를 받으며 주로 동경의 유학생과 일부의 '조선인' 노동자 속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1923년 9월 이후 동경천도교청년회가 천도교청년당 동경부로 개편되었다. 천도교청년당 동경부는 기관지로 『東學之光』을 발간하여 교리의 보급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노력했다.

그런가 하면 민족주의계열의 종교세력 가운데 기독교 세력의 경우를 보면, 동경조선인기독교청년회를 들 수 있다. 동경조선인기독교청년회는 동경에 1906년 8월 초대 총무 김정식이 가서 11월 설립되었는데, 초기 이 동경조선인기독교청년회는 세계기독교회의의 방을 빌려 근거지를 삼고 활동했다.⁵⁰⁾

1910년 이후 조선 내에서 기독교가 민족운동에서의 역할이 큰 것처럼 재일한인 사회에서도 전술한 동경조선인기독교청년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구한국외교단이 철수한 이후는 동경에 있어 동경기독교청년회관이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했다.⁵¹⁾

한편 일본지역의 경우도 의열투쟁의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 선구는 1921년 민원식을 처단한 양근환의거이다.⁵²⁾ 양근환은 1921년 동경의 호텔에서 참정권운동을 위해 간 민원식을 단도로 처단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일본인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김지섭의 의거를 들 수 있다. 의열단원이었던 김지섭은 관동대진재 때 '조선인'이 학살된 내용을 듣고 일제의 심장에 테러를 가하기로 결의하고, 1925년 1월 5일 궁성 정문과 二重橋에 폭탄을 던졌다.

48) 북성회는 1925년 1월 3일 일월회의 조직과 함께 자진 해산한다.

49) 김인덕, 「제1부 1920년대 이후 일본지역 민족운동」,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 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7쪽.

50) 유동식, 『재일본한국기독교청년회사-1906-1990-』, 재일본한국기독교청년회, 1990, 51쪽.

51) 전준, 『조총련연구』,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11-112쪽.

52) 장신, 「양근환의 생애 고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발표문(2010년 9월 25일)), 참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전조선인이 민족운동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의 또 다른 사람들은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1920년 대표적인 재일 반일주구단체로는 상애회를 들 수 있다.⁵³⁾ 상애회는 최초 출발할 때는 상구회였다. 1921년 경 상애회로 정식 출발하여 1923년에 가서는 10만 회원의 조직이 되었다. 이 상애회의 박춘금은 1923년 간토대진재로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합을 과시하듯 지진 뒷정리의 일환인 동경 시내 청소를 했다. 이후 이들 반동주구단체 상애회 일파는 일제의 지원 하에 발전을 거듭했다.

1923년 학살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재일한인들은 당시 소실을 면한 유일한 재일한인 단체였던 천도교청년회 사무실에 모였다. 예정 없이 모인 사람들은 제출된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회합에 참석한 한위건, 최승만, 박사직, 왕시진, 김은송, 김낙영 등은 각종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⁵⁴⁾ 10월 상순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를 결성하고 조사사업에 착수했다.⁵⁵⁾ 반인륜·반민중적 학살을 경험한 재일한인은 반일투쟁을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2. 통일적인 재일한인 민족운동

1925년 이후 국내 대중운동의 고양과 함께 재일한인 민족운동도 일본 전역에서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의 조직적 성과에 기초해 전국적인 대중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창건되었다. 이것을 소위 1차당이라고 한다. 조선공산당 1차당 시기 일본에는 일본부가 설치되었다. 최원택의 지도로 최원택, 김찬, 이석, 김정규로 야체이카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1차당 시기 일본부는 당시 일본지역의 재일한인의 여러 조직과 공산주의 세력을 묶어 내지는 못했다.⁵⁶⁾

조선공산당 2차당은 일본부 책임자로 김정규를 선정하여, 김정규에게 일본부 조직에 관한 모든 지령을 내렸다. 조선공산당 2차당이 일본부를 설치한 목적은 ‘조선공산당의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선 내 기타와 연락하며, 아울러 일본의 공산주의자들과 연락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다. 또한 일본부 책임비서에게 부여된 권한은 일본에서의 당원 신분, 야체이카 조직, 당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이었다. 조선공산당 2차당 시기에는 일본 내에 공산주의적 경향을 갖은 청년 학생들의 서클적 모임은 있었으나, 아직 당 조직 내에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지부가 조직되지 못했다.

일월회계의 국내 진출과 함께 일본부는 조선공산당 3차당 안광천 책임비서 때 부활되었다. 안광천은 일월회 시기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부를 재건했다. 책임비서 박락중으로 조직된 여기에는 일월회에서 활동하던 다수가 포진하고 있었다. 일본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 3차당 시기에 와서 재일한인 조직운동이 강화되어 처음으로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되었다.

53) 金斗鎔, 『日本に於ける反朝鮮民族運動史』, 郷土書房, 1947, 3쪽.

54) 김인덕,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순국』 (1993. 9.), 37쪽.

55) 鄭哲, 『在日韓國人の民族運動』, 洋洋社, 昭和 45年, 189-190쪽.

56) 1-4차의 조선공산당 일본부와 일본총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가 없으면 다음의 책을 참조한다.(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85-88쪽, 155-172쪽.)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의 주요한 활동은 조직의 확대 강화와 유학생과 재일한인 노동자에 대한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선공산당 3차당은 ‘노동자는 전민족운동의 선두가 되자’, ‘모든 힘을 신간회로’라는 슬로건을 제기했다. 조선공산당 3차당 시기 일본부 야채이카는 각종 노동단체와 공장 내에 들어가 조직사업을 전개해 東京, 大阪, 京都, 横濱에 60명의 당원을 포섭했다.

조선공산당 4차당 중앙은 일본총국과 만주총국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는 일본총국으로 1928년 4월경 재건되었다. 5월 조선공산당 4차당 책임비서 차금봉의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간부를 결정했다. 조선공산당 4차당 시기 고려공산청년회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전술했듯이 3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간부로 책임비서에 인정식을 선정했다. 그리고 관동부와 관서부를 설치했다. 다시 관동부를 東京區와 横濱區로 나누었다. 일본총국 한림책임비서 시기의 당 플렉션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신간회 동경지회, 동경조선노동조합 등에 설치되었다.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활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강화와 계급의식의 고양, 반일사상의 고취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리고 선전활동을 통해 당원의 획득과 당세의 확대에 노력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활동은 주로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대중단체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등의 중앙 그리고 각 지부, 반의 플렉션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선공산당 일본부와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은 민족운동에 있어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쟁취와 신간회 전술에 주목하며, 재일한인 민족운동을 주도했다. 아울러 이 조직은 재일한인의 대중조직인 노동단체와 학생,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지도해 갔다.

재일한인 노동운동 단체는 초기의 상호부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에서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함께 계급해방을 내건 조직으로 성장해 갔는데, 가시적 산물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다.⁵⁷⁾ 1925년 2월 22일 오전 10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조직되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창립되어 기존의 각종 재일한인 노동자 조직을 통일하여 대중을 단결시켰는데, 단체 가입의 원칙 아래 12개 단체 800명으로 출발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조직 확대가 계속되어 1925년 10월 1,220명의 조합원이 되었다.

특히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활동은 일월회의 지도와 기타 대중단체와의 공동으로 전개되었다. 1926년 하반기에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일본지역에서의 방향전환을 외형상 주도해 갔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정치부는 1927년 1월 12일자로 「방향전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민족적 단일정당의 결성을 선동했다.

방향전환론이 대두한 이후 최초의 대회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제3회 대회가 1927년 4월 20일 열렸다. 대회는 선언과 신강령을 채택했다. 특히 선언은 일본노동조합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민족·계급적 차별의 상황을 설명했다.

제3회 정기대회 이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각지에 분산적으로 조직된 조합을 정리, 통합하려는 ‘1府縣 1組合主義’ 원칙을 수립했다.⁵⁸⁾ 그리고 개편된 조직은 최고기관으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이 있고, 각 부현에 조합이 있으면서 조합 아래에는 지부를 설치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제4회 대회는 1928년 5월 동경에서 열렸다. 당시 재일본조선노동

57) 김인덕, 「제1부 1920년대 이후 일본지역 민족운동」,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 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43쪽.

58)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 創刊號, 1977, 99쪽.

총동맹의 간부는 조선공산당 4차당이 장악하여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권을 일본총국이 잡았다. 제4회 대회는 산업별 조합의 조직에 대해 토의했다. 이것은 곧바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1산업 1조합주의'로 본격적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현실화되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있어 제4회 대회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을 노동조합으로 확인한 대회였다. 그러나 자유노동자 중심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공장노동자의 경우도 대부분이 가내, 영세 사업장 취업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재편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1928년 9월 재편성 지령이 내려졌으나 실시되지 못했고, 지역별 조직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 조직의 강화와 이에 따라 대중적 정치투쟁을 전개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1927년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朝鮮總督府 暴壓政治 反對運動이다. 특히 이것은 지부의 연설회, 강연회 등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민족적 정치세력화가 보다 강화되었는데, 조선총독 폭압정치 반대운동에만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23회의 연설회, 14회의 데모, 40회의 삐라 살포투쟁이 있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은 1928년 활성화된 지부, 반 조직을 통해 민족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했다. 조선 내의 탄압, 간도공산당 사건에 대한 항의 등이 삐라로 선전되었고, 7·8월에는 국치기념일, 1923년 조선인 학살 기념일에 즈음하여 일본의 조선지배 전체를 비판하고 정치적 선전을 대대적으로 수행했다.

재일한인 청년운동은 전국적 조직으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지역에서의 청년운동의 조직화에 따라 재일 청년운동단체도 전국적인 조직 전망을 갖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1928년 3월 21일 오후 6시 대관에서 결성되었다.⁵⁹⁾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결성과 함께 청년운동 진영의 조직은 보다 강화되어 동경, 대판, 교토의 조선청년동맹이 지부로 변경하여 조직 내에 들어갔다.⁶⁰⁾ 그리고 1929년 4월에는 兵庫지부가 결성되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과 가장 긴밀한 우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간부들은 양쪽의 역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많았다. 실제로 재일한인 민족운동에서 공산주의계를 대표하는 2대 세력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조직에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고려공산청년회 플렉션이 들어가 있었다. 이들의 지도로 실제 투쟁은 조직되었다.⁶¹⁾ 특히 기관지를 통해 三總 해산운동에 반대하여 해금운동에 궤기할 것을 호소하고 치안유지법 개악, 조선 증병과 중국 출병 반대,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에 일어난 조선의 학생 동맹휴학 투쟁 지지 등을 표명했다.

한편 1927년 5월 7일 早稻田 스콧트홀에서는 신간회 동경지회가 창립되었다.⁶²⁾ 이렇게 동경에 신간회 지회가 빨리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단일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국내

59)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134쪽.

60) 『대중신문』(1928. 4. 1),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5), 아시아問題研究所, 1994, 388쪽.

61) 「在留朝鮮人運動狀況」(1930),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1), 三一書房, 1975, 137쪽.

62)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128쪽.

와 연결되어 동시에 전개되었던 사실과 조선공산당 일본부의 지도 아래 공동투쟁이 동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간회 동경지회는 1928년 초 본부와 대립했다. 그 계기는 대회 금지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또한 동경지회의 기관지 발간을 놓고도 본부 대립했다. 동경지회는 1927년 성립된 이후 기관지 발행을 계획했고, 제2회 대회에서도 결의되었으며, 그해 6월 내지는 8월에는 동경지회의 기관지로 『新幹新聞』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결국 본부의 발간 중지 명령으로 햇빛을 보지 못했다.

신간회 동경지회에는 일본총국 당 조직 개편 때인 1928년 4월 한림, 강소천이 플렉션으로 활동했고, 6월에 가서는 서인식, 임종웅으로 개편되었다.⁶³⁾ 특히 신간회 동경지회는 조직 초부터 무정부주의계의 재일한인 단체와는 조직·개인적으로 거의 연대를 구축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아나키스트계와 계속 대립관계였다.

1929년 신간회 동경지회는 원산총파업을 지지하는 격려 전보를 발송, 3·1기념일, 국치기념일 연설회 등을 열었다. 그리고 동경지회의 활동은 제3회 대회의 준비 이외에 1929년 9월 조선인 노동자 강제송환에 대한 항의 활동 지령을 본부로부터 접수했다. 이외에는 1931년 신간회 해소 때까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재일한인의 대중운동은 신간회와 함께 단체 연합에 의해 지도되기도 했다. 재일한인 대중조직으로 연합체적인 성격을 띤 조선인단체협의회가 있었다. 조선인단체협의회는 정우회선언 이후 국내 및 일본에서의 통합운동의 결과 1927년 2월 19일 결성되었다.⁶⁴⁾

재일한인 민족해방운동 단체들은 3·1 기념투쟁, 국치일 투쟁, 관동진재 조선인학살 추도회 등을 전개했고, 이것이 조선인단체협의회 결성의 토대가 되었다. 조선인단체협의회는 형식과 실제에 있어 신간회 보다 광범위한 조직으로 주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조선인’으로 민족의 해방을 회구하는 단체가 결집했다. 여기에는 아나키즘계열의 단체도 가입했다. 신간회 동경지회의 설립이 재일한인 단체의 공동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간회 동경지회를 주도하던 인물 가운데 조선인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던 조직의 구성원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 이 조선인단체협의회의 활동은 연대·공동투쟁이 중심이었다.

3. 1920년대 재일유학생 운동

1) 학우회

진술한 것처럼 학우회는 대한홍학회의 후신으로 1912년 10월 조직되었다. 1920년대 학우회는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재일조선인 유학생단체인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학회 등의 주요 구성원이었다.⁶⁵⁾

국내 학생운동과 함께 하며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학우

63) 「1929年の共産主義運動」,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 原書房, 1967, 38-39쪽.

64) 『思想運動』(3-4), 1926. 4,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5), アジア問題研究所, 1994, 196쪽.

65)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66), 1995, 118-119쪽. 그런가 하면 1920년 11월 김약수, 백무, 최갑춘 등이 중심이 되어 고학생 및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취지로 고학생동우회가 창립되었다. 이 밖에도 각종 향우회가 일본 내에 산재했다. 1920년대 동경 유학생 현황은 다음을 참조. 『在京朝鮮留學生概況』(大正14年).

회도 1920년대 중반에 가면 조직적으로 개편되었다. 1910년 10월 대한홍학회를 개칭하여 출범한 학우회는 유학생 친목회 연합으로 출발했다. 1910년대의 학우회는 구성된 이후에도 출신 지역별 모임이 분회로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지방분회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1916년 1월 총회에서 분회를 해산하고 중앙통일체로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체계를 갖추었다. 즉 종래의 ‘지방분회제’를 ‘중앙통일제’로 고쳐 조직을 개편했다.

학우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총무, 평의원, 문서부원, 간사부원, 재무부원, 지육부원, 체육부원, 학예부원, 편집부원으로 구성되어, 각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원은 평의회 결의에 따라 수시로 교체가 가능했다. 이러한 학우회의 1925년 시기 주요 조직의 구성원은 위원대표 : 한림, 서무부 : 임병도, 사교부 : 전부일, 재무부 : 손봉조, 변론부 : 권헌, 운동부 : 방창록, 편집부 : 이종직 등이었다.⁶⁶⁾

학우회도 일월회계의 한림에 의해 조직이 장악되어, 기존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일정하게 벗겨 된다. 1926년 이후에는 기존의 조헌영, 김광수, 최국빈, 박종대, 이호, 최영희, 박준지, 방창록, 정규창, 김성민 등과 새로 가입한 이여성, 안광천 등 사이에서 대립이 생겼다.

이 학우회에는 조직의 성격이 합법적 대중단체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중, 삼중으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학우회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월회, 신흥과학연구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학우회는 일월회 등에 의해 일정하게 내용적인 지도를 받으며,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1924년 1월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륜」과 「정치적 결사와 운동」에 대해 북성회, 동경조선노동동맹회,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 여자학흥회, 형설회, 노우사, 평문사, 전진사, 대판조선노동동맹회, 조선무산청년회, 재일본동경조선교육연구회 등의 단체와 함께 조선 안에서 허락되는 범위에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조선의 자치를 요구하며, 참정권 획득을 갈망하는 것으로 중국적으로 민족운동을 저해한다고 하여 성토문을 발간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동아일보사가 조선 민중의 적인 총독부의 손에 있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다.

1924년 10월 11일 조선기근구제회를 학우회는 학흥회, 무산청년회, 동경노동동맹회, 북성회, 해방운동사, 흑우회, 형설회 등 14개 단체와 함께 발기하여 조직했다.⁶⁷⁾ 기근 구제를 위해 춘계 육상운동회를 이용하여, 매점을 경영하고 수건을 팔아서 동아일보사에 이익금을 보냈다. 당시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근우회도 식당을 경영해 막대한 이익을 기근 구제를 위해 송금했다.

국내와 재일조선인 단체와의 연대투쟁과 함께 학우회의 사업은 주로 대중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연회, 연구회, 운동회, 웅변대회, 환영회, 환송회, 축하회 등을 통해 대중교양과 계몽활동을 전개했으며, 공산주의와 반일 투쟁사상이 선전·선동되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운동은 1920년대 초에 주로 학우회와 각종 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달리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학우회 활동이 침체되면서 신흥과학연구회, 학우회 등 공산주의계의 유학생 운동단체가 전투적인 투쟁을 주도했다.

그런가 하면 조선공산당의 창건 이후에는 국내와 일본에서 공산주의운동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하는 활동가가 늘어나고 피억압 민족해방, 반일본제국주의, 민족

66) 『학지광』 (27), 1926년 5월 24일.

67) 『시대일보』 1924년 10월 22일.

적 차별철폐 등의 혁명적 투쟁을 통한 조선의 독립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⁶⁸⁾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에 있어 학생 청년들의 구심이었던 학우회도 조직이 개편되는데,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의 조직에는 한림, 박형채를 비롯하여 이전보다 공산주의계에 속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928년에는 학우회 내 고려공산청년회 플렉션으로 박형채, 강춘순 등이 활동했다.

조직적 발전을 도모한 학우회는 『학지광』을 계속 발간했다. 『학지광』은 학우회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뚜렷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京에 研學하는 우리 학생 대중의 기관이 학우회이며 이 모든 진리의 원천을 배운대로 들은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발표하는 곳이 즉 학지광이다.」

『학지광』은 조선학계의 서광이었다. 학우회는 새로운 조선의 건설과 세계 개조의 신기치를 내건 이론과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0년 4월에 위원장이 된 황규섭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실적 이론의식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이론적 의식을 실천과 결합하여 비로소 현실적이 되는 변증법적 사유방법뿐이다. 환언하면 실천과 이론이 변증법적 통일이 되는 곳에 수립되는 역사적 이론 의식이 사상위기에 제하여 유일의 현실적 이론의식이다.’⁶⁹⁾면서 『학지광』을 통해 이론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고려공산청년회는 학우회에 1928년 시기에 플렉션으로 박형채, 강춘순 등을 파견했고, 같은 해 10월 일본총국 검거 때는 김강이 활동했다. 학우회는 이렇게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소속 구성원들에 의해 지도되어 대중 투쟁을 전개했다. 학우회의 투쟁은 1928년 시기에 도 합법 대중 단체와 조직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계속되었다.⁷⁰⁾

1928년 5월 학우회는 신흥과학연구회, 재동경조선여자학흥회와 공동으로 경성여자상업학교 동맹투쟁사건에 대해 「전조선의 학생대중에게 격함!」⁷¹⁾이라는 문건에서, ‘작년의 숙명여고, 중앙고보, 광성고보, 제일고보, 보성고보 등 용감한 학생청년의 전제교육에 대한 과감한 항쟁은 진실로 오늘날 각성된 조선청년의 기혼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 오늘의 소위 조선학교 당국자는 제국주의의 노예교육의 집행자이다. 경성여자상업학교에 내린 이 잔학한 폭압은 우리 전조선의 학생대중이 받은 폭압이다’고 조선 내에서 있었던 기존의 학교 단위 투쟁을 총괄하고 학교 교육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일제의 반동적 탄압에 대항하여 학생 청년들은 일어나 식민 교육의 현실을 돌파해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학우회는 국내 정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연대의 축을 형성했다. 조선청년총동맹의 창립대회에 한창식, 변희용 등을 대표로 참가시켰다. 그리고 광주학생사건 기념일과 대중시위 투쟁을 재일본조선인단체 예를 들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간부와 공동투쟁을 준비하기도 했다.⁷²⁾ 1929년 東京帝大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대회의 류원우의 개회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일본에 있었지만 재일 유학생에게 국내 문제와 국내의 투쟁은 주요한 관심사였다.

68) 「在留朝鮮人の運動」(1931),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1), 1124쪽.

69) 황규섭, 「학지광 경생의 의식」, 『학지광』(29), 1930. 4. 5.

70)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223쪽.

71) 『社會運動通信』1928年 5月 17日.

72) 「在留朝鮮人の運動」(1930),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1), 119쪽.

여러 형태의 모임은 재일본 조선인 반일투쟁의 중심이었다. 국내 강연회를 비롯하여 육상 운동회, 연설회, 졸업축하회, 웅변대회 등을 통해 학우회는 조선의 독립과 계급 해방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조직의 강화를 도모했다.

학우회는 조선 내에 지속적으로 강연단을 파견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여 대중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했다. 1920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유학생 강연단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연사는 주로 간부진에서 맡았다. 그리고 열차선에 따라 강연단의 구성원을 선임하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진행했다. ‘반도문화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연단은 제1회 강연을 1920년 7월 9일 동래 東明高等普通學校에서 열었다. 7차례의 강연 가운데 1929년 7월 시기 제6회 하기 순회강연은 기존의 강연이 고국방문과 연사 자신의 훈련의 기회로 활용되던 것과 달랐다. 동시에 각 도시만을 강연지로 하던 결함을 참작하여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의, 경부, 호남, 경원선으로 나누어 연사를 선별했다.

당시 강연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제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채워졌고, 무산대중의 교양과 문화선전에 주안점이 있었다. 물론 반일사상과 민족, 계급의식을 고취했다.

2)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

1920년 4월 11일 결성된 재일 불교유학생 최초의 단체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일본 유학생이 증대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결성되었다. 정광진, 엄용식, 김상철, 성기현, 김경주, 박경순, 강성인, 박종수, 이도현, 신태호, 신현철 등 11명이 발기하였다. 이들은 취지서에서 당시 사회를 개조의 시대라고 인식하고 조선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잠시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있는 불교청년 유학생들이 일지단결하여 조선 불교의 구태를 개조하고, 동시에 사회의 정진을 지도하기 위해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를 창립했다.⁷³⁾

실무조직으로는 이사, 회계, 서기 등을 두었고, 현재 기록으로는 전모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유학생들의 친목 도모가 주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20년 6월 20일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 총회는 이회광의 매종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당시 학우회의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토 임제종 종립학교에 재학하는 조선 불교 유학생의 입각지를 명백하도록 권고할 것. 2) 이회광의 회개의 권고문을 보낼 것.

京都의 임제종 종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조선 유학생의 입지를 명백히 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회광의 움직임에 대한 『중외일보』의 보도기사 때문이었다. 『중외일보』 기사의 내용은 이회광의 소속 사찰인 해인사도 일본 임제종파에 부속할 것이고, 교토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과도 더욱 유대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대해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교토 유학생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권고함과 동시에 문제를 야기시킨 이회광에게는 회개의 권고문을 발송하도록 결정했다.

1920년 7월 18일 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1) 보현사와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와 분리할 것. 2) 이회광 파직. 3) 교토 유학생 전학. 4) 관장제와 의원제도를 실행할 것.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이전의 결의에서 일보 전진한 것으로 일본 임제종파 관계였던 보현사 문제를 처리하고, 이회광에 대해 경고에서 멈추지 않고 파직을 결의했던 것이

73)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에 대해 이하 별도의 주가 없으면 다음의 책을 참조(김광식,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내 불교계의 단호한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1920년 12월 5일 학우회 회관 건립안을 작성하고 그 비용 15,000원을 국내 불교계에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1921년 4월 1일 동양대학에서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의 명칭을 개정했다.

3)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동경동맹의 해소 이후 재건된 제일 불교 유학생 단체이다.⁷⁴⁾ 1936년 9월 20일 창립되어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동경동맹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출범하였다.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동경동맹의 해소 후 불교 유학생 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1935년 5월 25일 동경의 김홍수 집에서는 東京 유학생 7명과 새로이 유학 온 11명이 단체 발기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단체 명을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로 정했다. 그리고 회칙 기초 위원으로 조명기, 문록선, 김삼도 3명을 정하면서 단체 발기 및 창립을 준비했다. 1936년 6월 6일에는 東京의 駒澤大學에서 18명의 유학생들이 발기대회를 갖고, 회칙제정, 회관문제, 역원선거와 추구원정, 하기 순강 등의 문제를 의결하였다.

간담회와 발기대회를 거쳐 1936년 9월 20일 창립대회가 열렸다.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통과, 2. 『금강저』 속간의 건, 3. 성덕학원에 관한 건(보류), 4. 남조선 수해구제에 관한 건(별기), 5. 본년도 예산편성, 6. 기타 사항 : 추기 야유회 개최의 건(별기)」

주요 활동을 보면, 매년 1-2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반 사항을 토의, 결의하고 집행부의 역원을 개선하였다. 또한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졸업논문 발표회 등을 진행하였다. 야유회와 하기방학을 이용해 국내 불교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국내 불교계의 주요 문제에 관여하여, 국내 불교계 개혁운동에 매진했던 강유문과 박성희의 추도회를 개최했다. 중앙불전의 수학여행단이 도쿄에 갔을 때 조직적으로 환영하였다. 그리고 조선불교 교육문제 좌담회, 교계명사 초대 다과회 등을 지속적으로 주관하였다.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는 발기 때부터 회관문제에 관심을 갖고, 1940년 2월 5일 제4회 정기총회에서는 회관 설치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1941년 2월 2일 제5회 정기총회에서는 회관 건설 기성위원회의 조직을 의결하고, 1941년 봄에는 목조 가옥을 차입하여 사무실로 활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1930년대 중반 이후 불교계의 친일화에 따라, 기관지 『금강저』에는 황국신민서사가 게재되고, 일본어로 표기되었으며, 일제 침략을 옹호하는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이 창씨 개명하였다.

IV. 1930-4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유학생 운동

1. 재일한인 민족운동의 해산

74)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참조.